

박상우 장관, “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” - 24일 오후 중동지역 재외공관장과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 논의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4일(수) 오후 서울에서 중동지역 재외공관장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간담회에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*(4.22~4.26)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동지역 주요 재외공관장**이 참석하였으며, 지난 11일 수주지원단 파견 국가인 르완다 재외공관장도 동석하였다.
 - *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 : ‘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’을 주제로 개최(외교부)
 - ** 사우디아라비아, 이라크, 쿠웨이트, 이집트, 바레인
- 박 장관은 “중동은 1970년대 최초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 누적수주액의 50%를 차지하는 우리기업 중점 전략 지역으로, 플랜트, 교통 인프라, 에너지,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”고 평가하면서,
 - “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,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500억불 달성 및 4대강국 진입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박 장관은 “지난 2월에 방문한 이라크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재개했고, 최근 방문한 르완다 역시 그린시티 신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개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”면서,
 - 특히, “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전담하는 「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」을 오늘 신설한 만큼,
 - 기존 도급사업 외에도 스마트 시티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, 발주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관련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4. 4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